

濟州島 神話에 나타난 婚姻 研究

金 惠 淑*

目 次

I. 序 論	IV. 婚姻形態
II. 婚姻規制	V. 婚姻決定 및 條件
III. 婚姻居住規則	VI. 結 論

I. 序 論

제주도 가족과 혼인 문제에 관한 역사적 문헌이나 자료는 극히 희소하다. 몇 종의 제주도 관련 문헌에서도 한두 줄 정도의 단편적 기록밖에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근대 이전의 혼인 문제의 전모를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반면 구전자료에 속하는 신화나 전설 등에는 의외로 가족과 혼인에 얽힌 이야기가 산재해 있다. 신화나 전설 등 구비문학 자료를 통해 제주도 가족의 거주규칙이나 혼인형태, 이혼 문제나 처첩관계 등을 살펴보는 일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신화라는 것 자체가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허구인듯 하면서도 대개 구체적 증거물들을 갖추고 있어서, 신성성과 진실성을 토대로 하는 것이 또한 신화라 할 수 있다. 신화의 진실성을 신뢰한다면, 그것이 생성되던 시대의 사회구조나 양상도 부분적으로 반영되어졌을 것이라는 점 또한 인정해야 될 것이다. “신화의 주체가 그 형성에 있어서 이미 인간 자신의 인격성의 투입을 받고 있다고 하면, 주체의 행동을 설명하고 혹은 서술하는 것으로서의 신화의 내용은 필연적으로 인간 자신의 현실세계에 있어서의 생활체험의 투입으로 성립되지 않을 수 없다.”¹⁾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견해를 수용한다면, 신화들도 과거 제주도민의 생활체험의 소산이라 생각해 볼 수 있

* 자연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Dept. of Home Management, Cheju Univ., Cheju-do, 690-756, Korea)

1) 松村武雄, 「神話學原論」 下卷, 현용준, 「제대학보」 6, 제주대, 1964, p. 37, 재인용.

다. 특히 문헌기록이 너무나 섬소하고 그나마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신화를 통해 제주도의 혼인제도를 파악해 보는 것도 하나의 접근 방법이라 여겨진다. 신화에 나타나 있는 혼인에 관한 제반 사항들이 단편적이고 엉성하다고 해도, 그것은 고대의 제주도 가족과 혼인 연구에 필수적이라 본다.

제주도 신화는 문헌신화와 구전되고 있는 무속신화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신화의 대표격인 삼성신화²⁾와 일반신들의 내려담인 본풀이 중에서 혼인관계가 나타나는 세경본풀이와 문전본풀이 그리고 도내 각 마을의 수호신인 堂神의 내려담이 담겨진 당신본풀이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婚 姻 規 制

모든 사회는 존속과 유지를 위해 나름대로 그 사회에 알맞게 혼인을 규제하는 어떤 원칙을 갖는다. 혼인규제(inmarriage regulation)란 혼인이 성립되는데 있어 어떤 일정 범주 내에서만 성사되는 내혼제(endogamy)와, 반대로 어떤 일정 범주 밖에서만 혼인하도록 하는 외혼제(exogamy)의 규제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범주라는 것은 여러 기준과 갈래가 있을 수 있다.

먼저 외혼제는 족외혼과 지역외혼을 들 수 있다. McLennan은 혼인을 집단간의 관계로 간주하고 족내혼과 족외혼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³⁾ 족외혼이란 동일 시조의 후손, 다시 말하면 혈족으로 여기는 범위의 사람들끼리는 서로 혼인을 하지않고, 그 범위 밖의 사람과 혼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동성동본불혼 원칙은 혼인규제에 있어 족외혼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지역외혼이란 일정 지역 밖에서만 사돈을 맺는 것이다. 과거 봉건 시대의 양반층에서는 지역외혼 곧, 촌락외혼이 주요한 관행이었다.

내혼제는 족내혼, 지역내혼, 계층내혼 또는 직업이나 종교 등이 같은 사람끼리 혼인하는 것을 말한다. 조선시대를 보면 양반은 양반끼리, 상민은 상민끼리 혼인이 이루어지는 바 이는 계층내혼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양반에 비해 상민가족은 같은 지역내에서의 혼인이라 할 수 있는 촌락내혼제가 두드러진다. 인도의 카스트 caste) 제도에서의 혼인은 직업과 계층내혼을 합한

2) 삼성신화는 지금까지 '三姓氏族의 始祖神話인 동시에 탐라의 開國神話'(현용준, 「삼성신화연구」, 「탐라문화연구」 제2집, 1983, p. 45)로 받아들여져 왔다. 최근 '삼성신화'라는 용어와 더불어 '시조신화'로 보는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장도 있다. 삼성신화에 대한 초기의 기록들에서는 '姓'字가 보이지 않으나 17세기 중반에는 '三姓'이 등장하여, 이 신화에 대한 해석이 성리학을 기초로 하는 姓氏中心思想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그 의미가 윤색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조신화'라고 하는 것은 혈연중심의 가족사회에 귀속시키게 됨으로써 본질적으로는 2차집단의 성격을 기초로 하는 신화의 내용을 1차집단의 차원으로 환원하는 것은 그 사회를 근거로 하고 있는 사회의 성격과 신화의 의미를 축소 조작하는 결과를 생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신화의 기본적인 성격은 '耽羅部族神話'이고 '乙那神話'라 명명하자는 제안이 있다. (전경수, 「제주연구와 용어의 탈식민지화」, 「濟州島言語民俗論叢」, 현용준박사화갑기념논총간행회, 1992, pp. 483-487)

3) J. F. McLennan, *Primitive Marriage*, London, 1865, Westermarck, 전게서, p. 156.

케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제주도 신화에 나타나는 혼인규제는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자.

삼신신화는 여러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高麗史地理誌』(端宗 2년, 1594년 刊), 성종 19년에 간행된 『東國通鑑』, 정조때 韓致淵이 편찬한 『海東譯史』, 1653년 이원진이 편찬한 『耽羅誌』, 1702년에 간행된 이형상의 『瓶窩全書 9』, 『耽羅錄』, 『瀛洲誌』⁴⁾ 1918년에 간행된 金錫翼의 『耽羅紀年』 등이 있다.

이 곳에서는 저자나 저작 연대가 확실치는 않으나, 삼신인과 세 처녀와의 혼인 부분이 가장 잘 묘사된 것으로 보이는 『瀛洲誌』를 이용하고자 한다. 이 문헌에는 탐라의 개벽신화도 비교적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다소 긴듯하나 처음부터 혼인에 관련된 부분까지 옮겨본다.

영주⁵⁾는 태초에 사람이 살지 않았다. 홀연히 세 신인이 한라산 북쪽 기슭에서 솟아 나왔는데 그곳을 모흥혈이라 한다. 장은 고을나, 차는 양을나, 삼은 부을나라 하였다. 그들의 외모는 매우 장대하고 도량이 넓어서 인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형상이었다. 그들은 가죽옷과 육식을 했고 항상 사냥을 일삼으며 생활하나 가업은 이루지 못하였다. 하루는 한라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자주빛 흙으로 봉한 목합이 동해쪽으로 떠와서 머물러 떠나지 않았다. 삼인은 내려가 이를 열고 본즉 속에는 새알 모양인 옥합이 있고, 자주빛 옷에 관대를 한 사자가 따라와 있었다. 또 옥합을 여니 푸른 옷을 입은 처녀 세 사람이 있었는데 모두 나이는 15,6세요, 용모는 품위 높고 아리따움이 보통이 아니었다. 각각이 아름답게 장식하여 같이 앉아 있었다. 또 망아지 송아지와 오곡의 종자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금당의 해안가에 내려 놓았다. 세 신인은 모두 즐거워서 말하기를 “이는 반드시 하늘이 우리 세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하였다. 사자는 두번 절하고 엎드려 말하기를, “나는 동해 벽랑국의 사자울시다. 우리 임금님이 이 세 공주를 낳으시고 나이가 다 장성해짐에도 이들의 배우자를 얻지 못하여 항상 탄식함이 한 해 남짓이나 됩니다. 근자에 우리 임금님께서 자소각에 오르시어 서쪽 바다의 기상을 바라 보시더니 자주빛 기운이 하늘을 이어 상서로운 빛이 서리는 것을 보시고 신자 삼인이 절악에 내려와 장차 나라를 열고자 하니, 배필이 없어서 하고 있으니 신더러 명하여 세 공주를 그곳으로 데려가라 하셔서 왔으니 좋도록 짝짓는 예를 올리시고 대업을 이룩하소서” 하고는 사자는 홀연 구름을 타고 사라져 간 곳을 알 수 없었다. 세 신인은 곧 목욕재계하여 하늘에 고하고 나이 차례로 그들과 결혼하여 물 좋고 기름진 땅을 골라 활을 쏘아 터를 정했다. 고을나가 사는 곳은 제이도, 양을나가 사는 곳은 제이도, 부을나가 사는 곳은 제삼도라 하였다.⁶⁾

4) 영주지의 저작년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金奉玉은 '고려 말엽 내지 이조 초엽의 저작'으로 추정하여 제주도 역사 자료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았다('탐라문헌집',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p. 1). 그러나 전경수는 고종년간인 1864-1900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았다(전경수, 전개논문, p. 485). 현용준은 '고려사'는 그 간행 연대가 분명하지만, 『영주지』는 그 연대가 분명하지 않아 어느 기사가 먼저인지는 불분명하다고 하였다(전개논문, 1983, p. 47).

5) 옛날 제주도를 일컬어 島夷, 東瀛州(한라산을 영주라고 함), 州胡國, 涉羅, 聃牟羅, 擔羅, 耽浮羅, 托羅, 혹은 耽羅라 칭하였다고 한다. (金錫翼, 金啓淵譯, 『耽羅紀年』,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pp. 341-344)

6) 원문: 瀛洲 太初 無人物也 忽有三神人 從地湧山嶺山北麓 有穴曰毛興 長曰高乙那 次曰梁乙那 三曰夫乙那 狀貌甚偉 器度寬豁 絕無人世之態也 皮衣肉食 常以遊獵爲事 不成家業矣 一日 登漢孛山 望見紫泥封木函 自東海中浮來欲留而不去 三人降臨就開則 內有玉函形如鳥卵 有一冠帶紫衣使者隨來 開函有青衣

개벽신화에 등장하는 삼신인의 혼인과정은 외혼제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신화에 나오는 동해 벽랑국은 「高麗史地理誌」에 日本國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벽랑국을 동해의 상상국⁷⁾」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 듯하다.

이 연구의 목적이 구체적인 위치 규명에 있지 않으므로, 제주도가 아닌 외지에서 혼인해 들어왔다는 기록에만 주목하고자 한다. 삼신인은 수렵 위주의 이동생활에서, 혼인하여 정착생활로 바뀌게 된다. 그곳이 일본이든 상상국이든 분명한 사실은, 삼성이 아닌 여성들이 제주도로 혼인해 온 부계출계(patrilinal descent)의 도외혼적 통혼권을 보여준다. 곧 족외혼이며 지역외혼이다 드러난다. 이 신화의 문맥을 그대로 따르다면, 태초에 사람이 살지 않았는데 모흥혈(지금의 삼혈)에서 3인이 솟아나, 이들이 제주도 시조가 되는 것이므로 족내혼이나 지역내혼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이 외혼제적 특성은 문헌신화인 삼성신화뿐만 아니라 구전되고 있는 여러 무속신화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제주도에 무속신앙이 성행했다는 사실은 堂神을 모신 '당'이 촌락 곳곳에 발견되는 데서도 입증된다. 이 무속신화의 줄거리를 제주에서는 '본풀이'라고 일컫는다.

당신화 중에서 우선 송당계 당신화를 살펴보자. 송당계 당신화란 구좌읍 송당리 당신화와 구좌읍 일 유형의 신화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이 유형은 구좌읍을 기점으로 해서 조천읍, 제주시 당신화에까지 널리 분포되어 있다. 제주도 신당이 남상된 곳으로 일컬어지는 송당은 본래 세 촌락으로 이루어져 있어, '웃손당', '셋손당', '알손당'이라 불리었다. '웃손당'은 '금백주'(백जू도 백주할망)라는 여신이, '셋손당'은 '세명주', '알손당'은 '소로소천국'이란 남신이 모셔져 있다. '소로소천국'과 '백जू도'는 부부신이며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18인, 딸이 28인, 손자가 3789인이다. 그 자손들이 도내 각 마을에 퍼져 분향신이 되었다고도 한다. 그러나 어떤 심방(무당)도 이 계보를 모두 아는 사람은 없고, 특히 딸의 계보는 전혀 기록된 것이 없다.⁸⁾

제주도 가족에서 여성의 역할이 비교적 크다는 사실은 두루 알려진 일이다. 한 예로 중문당 상·하예리 분향당 본풀이⁹⁾에는 이곳 당신의 딸 7자매의 계보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세력

妻子三人 皆年十五六 容姿脫俗 氣韻窈窕 各修飾共坐 且持駒犢五穀之種 出置金塘之岸 三神人自賀曰 是天必授我三人也 使者再拜稽首曰 我東海碧浪國使也 吾王生此三女 年皆壯盛而求不得所偶 當以遺嘆 歲餘 頃者吾王登紫霄閣 望氣于西溟則 紫氣連空 瑞色蔥蘢 中有絕岳 降神子三人 將欲開國而無配匹 於是命臣侍三女 以來 宜用伉儷之禮以成大業 使者忽乘雲而去莫知所之 三神人即以潔牲告天 以年次分焉 就泉甘土肥處 射矢卜地 高乙那所居曰第一都 良乙那所居曰第二都 夫乙那所居曰第三都 (著者未詳, 奉玉譯, 「瀛洲誌」, 「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pp.2-3).

7) 현용준, 전계 논문, 1983, p.61.

8)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p.87.

9)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진」, 신구문화사, 1980, p.749. 예리의 당신 '하로하로산'과 부인 '천가천왕어명국 죽달이대서 부인' 사이에 딸 7형제가 태어난다. 십오 세가 넘으니 같이 살 수가 없어 자기 다음과 같이 정좌한다. ① 長女: 난드르(中文 大坪) 주문도천일혜중조, ② 二女: 열 리(中文 下貌) 망밭일혜중조, ③ 三女: 거문길(安德 沙溪) 청밭할망일혜중조, ④ 四女: 번내왓(安德 和順) 옥당밭일혜중조, ⑤ 五女: 통천이(安德 相山) 고도세미일혜중조, ⑥ 六女: 창천리(安德 倉川) 당밭할망일혜중조, ⑦ 七女: 열 리(中文 下貌) 전신당일혜중조.

강했던 송당계 당신화에서 28인이나 되는 딸의 계보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숙제이다. 송당의 사제였던 男巫의 본풀이 구연에서는 8남까지의 계보가 세워져 있다.¹⁰⁾ 딸의 계보가 전혀 세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출계는 역시 철저한 부계혈통을 나타내는 한국 가족의 테두리 안에 속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된다. 송당계 당신화와 동일 유형의 본풀이들은 부분적 독자성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줄거리 짜임새는 같으므로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¹⁾

① 송당에서 솟아난 남신 '소로소천국'과 서울 남산에서 솟아난 '백जू도'가 혼인하여 아들 7형제를 낳는다. ② 여덟째 아들이 腹中에 있을 때, 妻神이 농사짓기를 권유하자 '소천국'은 밭을 갈다가 배가 고프니 밭 갈던 소똥 아니라 남의 소까지 잡아먹어 초요기를 한다. ③ 이를 안 처는 남편더러 "소도둑놈이 아니냐, 살림을 분산하자" 하고 갈라선다. 夫神은 집을 나가 첩을 얻고 수렵생활을 한다. ④ '백जू도'는 아들을 낳아 기른다. 일곱살이 되자, 아버지를 찾아가 어리광을 부리다가 불효하다 하여 石函에 담겨 동해에 버림을 받는다. ⑤ 식함이 동해용왕국의 산호수가 지에 걸려 궁안에 들어가게 되고, 영웅상이 용왕의 마음에 들어 용왕의 末女와 혼인한다. ⑥ 그러나 식성이 과다하여 용왕국의 東·西倉이 일시에 비어 가므로 사위를 먹여 살릴 수 없다 하여 부처를 실어 송당으로 돌려 보낸다. ⑦ 부부는 강남천자국에 닿고, 마침 일어난 병란을 평정하여 내공을 세우고 제주로 돌아온다. ⑧ 부모나 형들은 죽으라고 띄워버린 아들이 돌아옴을 보고 겁이 나서 도망가다 죽어 당신이 되었다. 어머니는 '웃손당 손당머리 큰 팽나무 밑'으로, 아버지는 '알손당 고부니마를'로, 큰 형은 '거머문곡성', 둘째 형은 '大靜廣靜堂', 셋째 형은 '정의시신당', 넷째는 '제주성안 내왓당', 다섯째는 '제내깃도'(김녕 당신), 여섯째는 '걸머리명동국', 일곱째는 '드리(교래) 산신포', 여덟째는 '토산분당'으로 들어가 각각 분향신이 되었다.

이 송당계 당신화는 이중 구조로 된 이야기로써, 부모의 혼인과 아들의 혼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두 세대간 혼인에서 아주 다른 특성이 나타난다. 먼저 부세대의 혼인을 보자. 서울 남산(또는 강남 천자국) 출생의 女神 '백जू도'가 제주 송당 출생의 남신 '소로소천국'을 찾아와 혼인하여 송당에서 살았다. 이것은, 삼성신화의 벽랑국 세 공주가 영주(탐라)에 와 혼인하고 거주했다는 점과 일치한다. 남성은 탐라에 있고, 여성이 외지에서 혼입해 들어오고 있다. 삼성신화와 마찬가지로 송당계 신화의 부세대 혼인도 족외혼적이며 지역외혼적인 혼인규제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이 신화의 자세대 혼인은 다르다. 아들이 동해용왕국에 들어가 용왕의 막내 딸과 혼인한다. 족외혼적이고 지역외혼적인 성격을 드러낸다는 점에서는 역시 부세대와 같다. 다른 점은 외지로 혼입해 들어가는 자가 남성쪽인 것이다.

용왕국의 딸과 혼인하는 유형은 송당계 신화의 변형인 토산 일뤼당 신화에서도 보인다. '일뤼당'은 어촌 마을의 분향당신이다. 이 남신은 산촌에서 태어났으나 쫓겨나 어촌을 설촌하게 된다.

10) 장주근, 「제주도무가」, 「국어국문학」 제19호, pp.150-154.

11) 현용준, 「제주도 신화에서 본 혼인」, 「제대학보」 제9호, 제주대, 1967, pp.12-13.

용왕국의 딸과 혼인한다는 것은 어촌 처녀와의 혼인¹²⁾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남신이 산촌에서 쫓겨남은 반촌의식을 갖는 중산간촌 사람들이, 어촌을 浦村이라 하여 천시하던 관행의 일면을 드러낸다. 자신들을 양반으로 의식하는 중산간촌에서는 어촌과의 통혼을 기피한다. 바닷가 마을로 쫓겨난 아들과 어촌 처녀와의 혼인은 계층내혼적 통혼권을 보이는 신화라 볼 수 있다.

외혼제적 특성을 보이는 것만은 확실하다.

본, 금상님본¹³⁾ 등 세 위의 신이 모셔지고 있다. 첫째는 한라산 백록담에서 솟아나 일곱 살에 「천자문」을 통달하고 「동몽선습」, 「사력초권」, 「통감전집」, 「소학」, 「대학」, 「중용」, 「서전」, 「시전」을 두루 섭렵하여 뛰어난 지모를 갖춘 '천쫓도'이다.

둘째는 서울 남산에서 솟아나 7살에 부모의 눈밖에 나 쫓겨난 '백쫓도'이다. 용왕천자국 외삼촌에게 守廳夫人으로 들어 갔다가, 15세에 제주에 사는 외조부인 '천쫓도'를 찾아와 같이 좌정한 여신이다. 세 번째는 '금상님'인데 서울 남산에서 솟아났다. 하늘이 아버지요, 땅을 어머니로 모신 천하의 맹장이다. '주정비란' 때 도원수가 되어 이를 평정하고 무공을 세웠으나, 왕이 후환을 두려워 하여 죽이려 하였다. 피신하여 제주에 들어와 '백쫓도'를 사모했고, '백쫓도' 또한 마음이 끌려 서로가 혼인을 원하였다. 그러나 외조부는 '금상님'의 육식을 좋아하는 식성 때문에 허혼하지 않는다. 그러자 백쫓도가 육식 금지를 조건으로 제의하여 외조부에게 혼인을 승락받는다. '금상님'은 '백쫓도'와 혼인하여 세화리 본향당에 함께 좌정하게 된다. 이 당신화는 삼성신화나 송당계 신화와는 또 다른 성격을 읽을 수 있다. '백쫓도'가 서울 출생이긴 하지만 외조부를 찾아 제주에 와 있었다. 남신인 '금상님'이 여성 집단으로 찾아와 혼인하고 좌정했으므로, 남성이 여성측으로 혼입해 온 것이다. 백쫓도가 외지에서 왔고 마찬가지로 금상님도 외지에서 제주에 들어 왔다. '천쫓도'가 외손녀를 받아들이고 혼인시켜 외손자 사위까지 거느리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백쫓도'에 의한 외손봉사까지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제주도 가족의 외척 존중의 관습을 엿보게 한다. 이를 두고 모권적이라는 단정을 내리는 것은 비약이 심하지만, 육지 전통가족에 비해 제주도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부계친 못지 않게 외가친과의 유대관계도 유지”¹⁴⁾하고 있음은 여러 관점에서 지적된 바 있다.

삼성신화와 세화리 당신화를 보면 외혼제적 요소와 직접적인 상관성은 없지만, 초혼년령에 대한 시사를 발견할 수 있다. 두 신화 모두 남신들의 혼인년령에는 언급이 없으나, 여신들의 초혼년령이 15, 6세 정도임을 밝히고 있다. 남신들은 삼성신화에서는 수렵 생활을 했고, 세화리 당신화의 금상님은 주정비란 때 도원수가 되어 무공을 세웠다. 수렵이나 무공을 세우는 일이 어린 나이에는 무리일 수밖에 없다. 이 남신들이 조혼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연령이다. 여신들이 15세 정도라는 점에서 남편연상형의 혼인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앞의 상·하예리 본향당

12) 문무병, 「濟州道 蛇神信仰 研究」, 「제주도언어민속논총」, 현용준박사화갑기념논총간행위, 1992, pp. 416-417.

13) 현용준, 전개서, 1980, pp. 661-676.

14) 최재석, 「제주도의 친족조직」, 일지사, 1975, pp. 168-170.

본풀이에서도 십오세가 넘으니 같이 살 수 없어 각각 독립하여 당신으로 좌정하고 있다. 조선조 양반사회의 처연상형과 상이한 모습이어서, 제주도 초혼년령의 특징이 엿보이는 신화라 여겨진다.

· 이상에서 삼성신화, 송당계 당신화 본풀이, 세화리 본향당 본풀이에서 혼인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통점은 계층내혼제적 요소와 함께 족외혼, 지역외혼제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이 남성측에 혼입해 오는 삼성신화와 송당계 본풀이의 부세대 유형이 있고, 반대로 남성이 여성측에 혼입하는 송당계 본풀이의 자세대와 세화리 본향당 본풀이 유형이 있었다. 남성쪽이든 여성쪽이든 일단 외지에서 혼입해 들어오는 외혼제적 특성을 보이는 것만은 확실하다.

제주도는 통혼권이 촌락내혼제의 속성을 강하게 지닌다¹⁵⁾고 보고되어 있다. 그런데 신화에서는 통혼권이 지역외혼제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어째서 신화에서는 도외혼의 통혼권을 보여주는 것일까. 추론해 본다면 삼성신화는 가부장제의 확립과 더불어 농경 정착생활을 보여 주는 바, 여성이 혼입해 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설정되어야 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남성집단으로 여성이 귀속되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이다. 삼성신화를 “탐라부족이 벽랑부족과 혼인에 의한 결연관계(alliance)를 맺는 즉, 탐라사회의 외부로부터 혼입해 오는 우위세력이 탐라사회에 선진기술을 이식”¹⁶⁾ 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정착농경 경제로의 진화를 위해 외부세력의 등장 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이 외부세력이 바로 ‘세공주’와 ‘벽랑국사자’의 등장이며, 도외혼의 통혼권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선진문화 집단과의 혼인연맹을 통해 사회의 발전 및 세력확장을 도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삼성신화에서 세 여성이 오곡을 가져오는 것은 곧 새로운 문화가 유입되는 것이며, 나아가 섬 사람들이 외부 사회로의 진출이라는 꿈을 혼인동맹을 통해 실현시키고자 하는 노력인 것이다.

Ⅲ. 婚姻居住規則

혼인한 부부에게 거처가 정해지는 방식을 거주규칙(rule of residence)이라고 하며, 이 규칙은 사회구조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다. 남편 부모의 집이나 그 부근에 거처를 정하는 것을 父處制居住(patrilocal residence), 처의 부모가 거주하는 곳이거나 그 부근에 정하는 것을 母處制居住(matrilocal residence)라 한다. 이 두 방식의 장소 선택은 거주 형태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영향하

15) 최재석, 전게서, 1979, pp.139-145. 津波高志, 「제주도의 통혼권」, 전게서, 현용준박사화갑기념논총간행위, 1992, pp.567-579. 정대연외 2인, 「제주근해 유인도 학술조사 보고서」, 「제주유인도학술조사」, 제주문화방송, 1991, pp.287-289 등.

16) 전경수, 「上古耽羅社會의 基本構造와 運動方向」, 「제주도연구」 제4집, 1987, pp.21-22. 허남춘도 토착민 지배세력의 남성집단과 이주민 여성이 결합한 부족연맹사회의 반영으로 해석한 바 있다(허남춘, 「삼성신화 일고찰」, 전게서, 현용준박사화갑기념논총간행위, 1992, p.275).

에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 父處制나 母處制나 하는 것은 부부가 어느 편 부모의 영향하에 놓이느냐 하는 데에 따른 구분 방식이다. 모처제 거주형태를 택하는 모계사회에서도 부부가 남편의 외숙에게 가서 사는 外叔處制居住(avunculocal residence)도 있다.

신혼부부 당사자의 관점에서 말할 때는 신부가 신랑 거주지쪽으로 혼입해 가는 것을 夫處制居住(virilocal residence), 신랑이 신부의 거주지로 옮기는 것을 婦處制居住(uxorilocal residence)라 한다. 반면 어느 부모의 영향권에도 들지 않고, 신혼부부가 독자적인 새로운 거처를 정할 수도 있는데, 이를 新處制居住(neolcal residence)라 한다. 이와 같은 거주규칙에서 보면 부처제나 모처제는 모두 단처제거주(unilocal residence)에 속한다.

그러나 거주규칙이 좀더 복합적인 복처제거주(duolocal residence)도 있다. 복처제란 한국의 媾留婦家婚과 같이 신혼부부가 처음에는 모처제에 속했다가 후에 부처제로 옮기는 모처-부처제(matri-patrilocal residence)가 있는가 하면, 부처제를 취하다가 새로 살림을 나서 신처제(neolocal residence)가 되는 등 보다 유동적인 거주규칙을 갖는 것을 말한다. 또 신혼부부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양가 중 어느 한쪽으로 거주를 정하는 양처제거주(bilocal residence) 유형도 있다. 이때 부부가 자유로이 거주를 정하는 것을 G. P. Murdock은 選處制居住(ambilocal residence)라 했고, D. Freeman은 擇處制居住(utrolocal residence)라 부르기도 한다.¹⁷⁾

부부의 결혼생활 장소는 이와 같이 여러 갈래로 나눌 수 있다. 과연 제주도 신화에 나오는 거주규칙은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삼성신화를 보면, 동해 벽랑국의 세 공주가 세 신에게 찾아와 혼인하고 각각 거주 장소를 정해 정착한다. 곧 삼성신화에는 부처제거주(patrilocal residence, 또는 virilocal residence)임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편 성산읍 온평리에는 '혼인지' 전설이 있다. 三乙那가 해안을 따라 사냥하다 온평리의 속칭 '화성개'에서, 물결에 떠내려 오는 케 짝을 발견하고 동해벽랑국의 세 공주를 맞이한다. 함께 '삼성혈'이 있는 제주시쪽으로 떠나는데 바닷가에서 좀 떨어진 곳에 수목이 울창하고 큰 못이 있는 곳에 당도한다. 이 못에서 목욕제계 후 혼인하고 못가 끝에서 초야를 지냈다. 이 못을 '婚姻池' 또는 '婚姻趾'라 부른다는 것이다.¹⁸⁾ 결국 오늘날의 혼인처럼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첫날밤을 부근의 케(굴)에서 보냈다는 사실에 주목을 요한다. 세 공주를 자신들이 거처하는 곳으로 바로 데려오지 않았다는 것은, 적어도 신방 장소가 신랑집은 아니라는 점이다. 바다 건너에서 세 공주가 도착했으므로 신부집(거처지)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해도, 혼처가 여성들의 도착지인 온평리(속칭 열운이: 緣婚里)였다는 사실은 서류부가 혼속의 관점에서 재조명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삼성신화의 성립 시기가 언제인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이 신화 출현 당시에는 이미 가부장제가 확립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세 공주가 혼입하면서 망아지 송아지와 오곡

17) G. P. Murdock, Social Structure, N. Y., Free Press, 1949, p. 16, D. Freeman, 1955, p. 7.

18) 양중해, 「삼성신화와 혼인지」, 『국문학보』 제3집, 1970, pp. 49-73.

종자를 함께 지참하고 있는 데서도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세계 도처에 흔한 관습인 持參金(dowry)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참금이란 신부의 부모나 친족이 주는 것이다. 지참금의 내용은 음식물, 의복, 장식품, 가재도구, 가축 또는 기타의 물품 등이지만, 몇 마리의 가축만으로 이루어지는 수도 있다.¹⁹⁾ 원래 고·양·부을나 삼인은 수렵이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다. 수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세 여성이 가지고 온 가축들과 각종 씨앗은 농경 정착생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지참금은 경작지가 고정된 농업과 봉건적인 경제체제에 기초한 사회²⁰⁾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한때는 유럽 농촌에서 성행했었고 아시아 전역에도 퍼져 있었던 풍습이다. 물론 여기서 지참금의 의미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논하려는 것은 아니다. 신부가 지참금 또는 혼수를 마련하여 신랑측에 와서 부처제거주를 택했다는 사실은 가부장제적 여러 요건들이 충족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농경사회, 족외혼, 부처제, 지참금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가부장제 사회가 확립되는 단계라는 사실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면 송당계 당신화를 통해 거주규칙을 살펴보자. 이 당신화에는 부세대와 자(8남)세대의 혼인 양상이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은 앞에서 지적되었다. 부세대의 혼인은 부처제거주이며, 자세대는 그 자신이 여성측으로 혼입해 들어가 살게 된다. 처가에 들어가 함께 산 기간이 얼마 동안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남편은 처를 데리고 다시 본가로 돌아오게 된다. 이를 거주규칙의 시각에서 보면 모처-부처제거주²¹⁾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조선조 중엽 이전 한국 가족의 서류부가 혼속의 실마리를 혼인지 전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주목할 만한 대목으로 판단된다.

모처-부처제거주를 나타내는 당신화는 송당계 신화뿐만은 아니다. 중문리 본향당 신화²²⁾를 보면 父神은 한라산 셋어깨 '소못된밭'에서 솟아난 9형제 중의 제 5남인 '중문이 하로하로산'이고 모신은 '진궁하늘 진궁부인'이다.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²³⁾이 부모에게 불효하여 쫓겨나 결국은 동해 용왕국의 말녀인 '요왕아기'와 혼인하여 살다가, 본가로 되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송당 신화와 매우 유사한 내용으로 서류부가혼인 것이다. 그 외에도 칠머릿당(제주시 건입동) 본풀이, 김녕 케네깃당 본풀이, 신평·하천 본향당 본풀이 등에서도 동해 용왕국으로 남성이 혼입해 들어가는 내용들이다. 「삼국지」 위지 고구려전에는 한국 가족이 서류부가 혼속임을 드러내는 구절이 있다.

19) E. A. Westermarck, 최달곤·정동호 공역, 「인류혼인사」, 박영사, 1981, pp.155-156.

20) R. Keesing, 전경수역, 「현대문화인류학」 1985, p. 327.

21) 현용준 교수는 이를 '一時的 妻處婚(婿入婚)'이라고 하였다. (전계논문, 1967, pp.12-14.)

22) 현용준, 전계서, 1980, pp. 753-758.

23) 심방에 따라서는 아들이 아니라 딸로 구연되기도 한다. 딸이 불효하여 쫓겨날 때 남장하고 떠나서 혼인하고 돌아온다는 것이다. 남장에 속아서 혼인한 용왕국의 말녀를 '불목당'에 모셔 처녀의 원혼을 달랜다는 내용이다(1985. 8. 7. 서귀포시 예래동, 김명선 구술, 고광민·문무병 채록 정리).

풍속에 남녀간 혼인이 성립되면 여가에서는 자기집 뒤에 小屋을 짓는데 이를 媾屋이라 한다. 날이 저물면 사위가 대문밖에 와서 여자와 동숙할 것을 세 번 간청한다. 그 부모가 이를 듣고 서욕으로 안내하여 여자와 동숙하게 된다. 이때 사위는 돈과 비단을 제공한다. 자녀를 낳아 장성하면 비로소 남편은 처자를 데리고 본가로 간다.²⁴⁾

이 기록은 거주규칙상 모처-부처제 거주로서 서류부가 혼숙임이 드러난다. 한국 가족이 서류부가²⁵⁾의 전통을 갖고 있음은 여러 문헌에서 밝혀진 사실이지만, 제주도 가족에서는 그 근거가 될만한 자료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다만 李元鑣의 「탐라지」와 이형상의 「南宦博物」에 이 서류부가 혼숙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구절만이 보인다.

구혼하는 사람은 반드시 술과 고기를 준비한다. 납채하는 자도 그렇다. 혼인날 저녁 사위는 술과 고기를 준비하여 신부의 부모를 뵈고, 취한 뒤에야 신방에 들어간다.²⁶⁾

혼례는 문에서 배례한다(婚禮拜門). 地誌에 의하면 求婚하는 자는 반드시 술과 고기를 갖춘다. 納采할 때도 역시 그러한다. 혼인은 저녁에 사위될 자가 술과 고기를 갖추어 가서 배알하면 신부의 부모는 조출하게 饌을 차리되 신부는 나가지 않는다. 술이 취한 후에 신랑이 入房한다 하는데 지금도 역시 이 풍속이 있다.²⁷⁾

혼인날 저녁 사위가 신부의 부모를 모시고 취한 뒤에야 신방에 들어간다는 문백적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제주도에서도 혼인 초에는 신부집에서 지낸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가족이 고구려 시대에는 처가에서 본가로 돌아오는 기간이 자녀를 낳고 장성할 때까지였다. 후대로 내려올수록 그 기간이 짧아져, 조선 후기에는 '삼일대반'(삼일도배기)으로까지 변화한다. 기간이 짧아졌지만 여전히 서류부가 혼숙은 명목상으로라도 유지되어 왔던 것이다. 이 '서류부가'의 기간은 시대마다 일정하지는 않은 것 같다.

문헌기록으로는 위의 「탐라지」와 「南宦博物」에 나오는 구절이 서류부가 혼숙과 관련된 제도나 관행에 관한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혼인 첫날 밤 신부 부모를 뵈고 신방에 든다고 하여, 그 신방이 처가에 마련될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단정을 내리기는 이르다고 생각된다. 위의 기록들에는 제주도 혼숙에 대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경향을 조사, 기록한 것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안목에 비친 특이한 현상을 한두 줄 기술했을 가능

24) 원문 : 其俗作婚姻 言語已定 女家作小屋於大屋後名媾屋 媾暮至女家戶外 自名跪拜乞得赦女宿 如是者再三 女父母乃聽 使赦小屋中宿 傍頃錢帛至生子已長大 乃將婦歸家(三國志 魏志 高句麗傳)

25) 최재석, 「한국가족제도사연구」, 일지사, 1983, pp. 92-99. 이광규는 '男歸女家'라하여 모처-부처제라 하였다. 「한국가족의 사적 연구」, 일지사, 1977, pp. 150-158. 박경휘, 「조선민족혼인사연구」, 한남대 충청문화연구소, 1992, pp. 11-15.

26) 원문 : 求婚者必備酒肉 納采者亦然 昏夕媾備酒肉 謁婦之父母 醉後乃入房. 효종 4년(1653)에 간행된 私撰邑誌. 헌전하는 최초의 읍지로써, 이 후에 편찬되는 읍지들은 官·私撰을 막론하고 이 문헌을 참고하고 있다. 李元鑣, 「耽羅志」,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1, p. 19.

27) 이형상 편저, 김봉옥 옮김, 「南宦博物」, 제주도 제93집, 1993, p. 310.

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일촌락 내라면 혼인날 저녁 신부의 부모를 뵙고난 후 신랑집에 신방을 마련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도에 서류부가 혼속이 확실히 존재했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증거가 더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송당계 신화에 나오는 자세대의 혼인이 모처-부처제거주로서 서류부가 혼속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혼인지 전설과 이원진, 이형상의 기록과 더불어 송당계 신화의 아들세대 혼인은 상당히 의미있는 내용이다. 세화리 본향당 본풀이는 앞의 혼인규제에서 이미 시사된 바 있지만 남성인 ‘금상님’이 여성측의 친가도 아닌 외가에 들어와 혼인하고 함께 생활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婦處制居住 즉 모처제거주의 예라고 할 수 있는 신화인 것이다.

이상에서 삼성신화, 송당계 신화, 세화리 당신화를 거주규칙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 우리는 여기서 거주규칙을 세 가지 유형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로 삼성신화와 송당계 당신화의 부세대는 부처제를 취한다. 둘째로 세화리 당신화에서는 모처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셋째, 송당계 당신화의 자세대 혼인은 모처-부처제로서 이는 한국 가족의 서류부가 혼속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한편 제주도 가족에 있어 모계가 부계에 선행된다는 견해도 있다.²⁸⁾ 이는 진화론적 입장에서 가족발전단계설에 따른 시각인 듯하다. 그러나 그 설의 주장처럼 모든 사회에서 반드시 모계가 선행된다는 뚜렷한 근거는 없는 것이며, 제주도의 가족 또한 마찬가지라 여겨진다.

세 갈래 유형분류 중에서 좀 더 유념해야 될 사항이 있다. 그것은 삼성신화는 단 하나의 문헌 신화이고, 세화리 당신화는 그 분포가 그다지 넓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송당계 당신화는 여러 지역에 널리 확산되어 있다. 분포의 확산이란 점에서 삼성신화나 세화리 당신화보다 송당계 신화가 훨씬 더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화에서는 모처-부처제거주 즉 서류부가 혼속이 보다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한편 “삼성신화는 본래 당신화였던 것이 조선조의 유교적 조상숭배와 관에 영합되어 개국시조 신화화하고 그 유례가 유식화했으며, 그 신화의 유형은 송당계 신화에 유사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삼성신화가 송당계 신화보다 고대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²⁹⁾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 견해가 타당하다면, 송당계 신화가 삼성신화보다 더 이른 시기의 것이라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송당계 신화에 나타나는 부세대 유형은 부처제이며, 자세대 유형은 모처-부처제거주 즉 서류부가 혼속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를 가지고 시기적으로 부처제거주가 선행했었고, 후에 모처-부처제거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겠으나, 적어도 이 두 유형의 존재 가능성은 지적할

28) 현용준은 “婦處로 보면 모처혼적 잔영이 약간 있고, 一時的 妻處婚의 서술이 일반적이며, 父處婚의 서술이 후대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었다. 만일 이 신화들이 제주도의 독자적 발생과 내적 성장의 신화라면, 제주도의 사회, 문화유형이 모계제 사회에서 부계제 사회로 단계를 밟아 변천을 해 왔다”고 하여 모계에서 부계로의 발달단계를 지적하고 있다(전계논문, 1967, pp. 16-19).

29) 현용준, 전계논문, 1967, p. 15.

수 있으리라 본다. 특히 부세대와 자세대의 서로 다른 거주 유형이 동시에 보이고 있으나, 후자의 설명에 상당부분 할애하고 있다. 자세대 이야기에 비중이 크게 두어진다는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만큼 서류부가혼이 이 신화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은 아닐까. 이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제주도 당신화에서는 서류부가 혼속을 발견해 낼 수 있고, 그 신화의 분포가 넓고 일반적이라는 사실에 주목을 요한다고 하겠다.

IV. 婚 姻 形 態

혼인형태(marriage form)를 구분하는 것은 배우자의 숫자가 기준이 된다. 그 갈래는 단혼제(monogamy)와 복혼제(polygamy)로 대별된다. 단혼제란 일부일처제를 말한다. 복혼제는 다시 한 남성이 복수의 여성과 혼인생활을 영위하는 일부다처제(polygyny)와, 한 여성이 둘 이상의 남성과 혼인하는 일처다부제(polyandry)로 나누어 볼 수 있다. Pasternak에 따르면 862개 사회에선 일부다처제가 83%, 일부일처제는 1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처다부제는 4개 사회로 조사³⁰⁾되어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Stephens에 따르면 일처다부제 사회도 41개나 있다고 보고하였다.³¹⁾어쨌든 통계의 일처 여부를 차치하고 인류사회가 대부분 일부다처제의 혼인형태를 가장 널리 선호하고 있음은 확실하다.

혼인형태가 제주도 신화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자. 신화에서는 다처간의 지위관계, 처와 첩의 호칭 및 지위 차이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우선 삼성신화에서는 확실한 일부일처제로 나타난다. 삼성 신과 벽랑국의 세 공주가 나이 차례대로 혼인했으므로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나이 차례라함은 연장자 순을 지적하는 것으로써 상하 서열기준의 확립도 나타난다. 세화리 당신화에서도 '금상님'과 혼인하고 세화리 본향당에 의조부와 정좌하므로 이 신화 역시 일부일처제의 혼인형태이다.

반면에 송당계 당신화에서는 보다 복잡한 혼인형태를 보이고 있다. 거주규칙을 살필 때도 부처제거주와 모처-부처제거주가 병존하고 있었지만, 나아가 이혼과 취첩의 문제가 등장한다. 남편인 '소로소천국'이 발을 갈다 배가 고파 자기 소는 물론 남의 집 소까지 잡아먹자, 처인 '백죽도'가 소도둑놈이라면서 살림을 가르자고 돌아선다. 여성측에서 먼저 이혼을 제기했고, 잘못을 저지른 남편이 집을 나간다. 축출된 남편은 '오백장군 또님아기'(송당 본향당 본풀이) 또는 '정동칼챗돌'(김녕 케네깃당 본풀이)을 첩으로 삼아 수렵생활을 하며 지낸다. 이 신화에서 제주도 가족의 높은 이혼율³²⁾이 드러나며, 부부간 의사결정권에 있어 부인의 결정권이 육지에 비해 높게³³⁾

30) B. Pasternak, *Introduction to kinship and Social Organization*, Englewood, Prentice-Hall Inc, 1976, p.62.

31) W. N. Stephens, 1966, p. 25.

32) 김혜숙, 「제주도의 이·재혼 연구」, 『논문집』 제22집, 제주대, 1986, pp.417-424.

33) 김혜숙, 「제주도 가정의 부부간 의사결정권에 관한 연구」 1, 『대한가정학회지』 20-3, 1982, 「제주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 신화에 나오는 이혼 문제에 있어 특히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 처음에는 서울 남산에서 솟아난 '임정국 따님' 곧, '백주할망'이 송당의 '소로소천국'을 찾아와 부부가 되어 산다. 다음에 이혼 사유가 발생하자, 부인이 먼저 이혼을 제기하고 실행한다. 이때 의지에서 혼입한 부인이 집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대책없이 내쫓긴다. 남편은 첩을 얻어 딴 살림을 차리고 있다. 한국의 전통가족에서는 부인이 이혼을 당하여 쫓겨나는게 통상적이다. 거주규칙의 관점에서 볼 때 초혼에서 분명히 父處制(夫處制)의 성격을 띠었던 이들 부부가 이혼하게 되어서는 남편이 집을 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남성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노동경제력을 지닌 제주 여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출계가 명백한 부계이고 도처에 가부장제적 성격이 농후한데도, 이혼제도에 있어서는 여성의 독자적 결정권과 독립성의 측면 또한 만만치 않다. 여기서 제주도 가족의 특성을 가리켜 '기혼여성 중심'이라는 지적³⁴⁾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남편이 쫓겨나긴 했지만, 당시 임신중이었던 아들이 태어나 성장하여 아버지를 찾아가고 있는 사실도 결국 출계는 확실하게 부계임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

한편, 표선면 토산리에는 '일렛당'(七日堂, 뒷쪽에 있어 '웃당'이라고도 함)과 '여드렛당'(八日堂, 아랫쪽에 있어 '알당'이라고도 함)이 있다. 송당계 당신화의 한 갈래이며, 자세대 생활에 중점을 두어 구성된 토산 일렛당 신화를 살펴보자.³⁵⁾ 송당신의 아들이 용왕국 말녀와 혼인하고 기거하다 함께 돌아왔지만, 다시 '새금상'의 아홉째 딸을 첩으로 삼아 일부다처형 가정을 이룬다. 처인 용왕말녀가 목이 말라 돼지 발자국의 물을 빨아 먹다가 돼지 털이 코를 찌르자 이를 불태워 먹었다. 남편이 돼지고기를 먹어 부정하다고 하여 마라도로 귀양보내 버렸다. 작은 부인이 그만한 일에 귀양까지 보내는 것은 심하니 풀어 달라고 졸라, 용왕말녀와 그 자녀들을 데려와 함께 산다. 이 신화는 큰부인, 작은 부인의 호칭도 그렇지만, 처첩간 지위의 차도 별로 크지 않다. 작은 부인이 오히려 큰부인을 돕고 있어 처첩간 갈등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 점이 특이하다. 그러나 진성기의 알당 본풀이³⁶⁾에서는 왜선이 파선되는 줄거리 전개가 등장하는데, 이는 '개로육섯도'의 본부인인 '요왕부인'이 시앗을 질투하여 일으킨 것으로써, 처첩간 갈등이 노정되고 있다.

조천읍 교래리 당신화에는 소천국의 아들이 '토산여드렛당' 신과 혼인한다. 이 당신은 소천국의 열한 번째 아들로서 부모에게서 쫓겨나 토산 당신이 되었다. 처신은 '옥당부인'이고, 첩신은 '서당국'에서 솟아난 '고씨부인'이다.³⁷⁾ 송당신화에서 아버지인 소로소천국이 첩을 얻고 있고, 토산 일렛당신화에서는 아들도 용왕 말녀와 혼인 후 본가에 돌아와 살다가 첩을 얻었다. 그런데 조천읍 교래리 당신화에서는 열한 번째 아들이 첩을 얻고 있는 것이다.

가정의 부부간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창간호, 1983.

34) 佐藤信行, 『濟州島の家族』, 中根千枝編, 『韓國農村の家族と祭儀』, 1973, p. 110.

35) 현용준, 전계서, 1980, pp. 706-712.

36) 진성기, 『제주도무가집』 2, pp. 20-34.

37) 장주근, 『제주도 무가』 (二), 『국어국문학』 제22호, pp. 146-147.

제주시 궁당(용담동 다끄네) 본향당의 정절상군농본³⁸⁾에 따르면 ‘상스대왕 큰부인은 증전대부 인되고, 작은 부인(後妻)은 정절상군농 됴네다’로 시작된다. 이 작은 부인인 정절상군농이 임신했을 때, 돼지고기를 먹고 싶어 돼지털 하나를 붙여 태워 냄새를 맡았다. 남편이 냄새를 알아채고 양반집 부인이 부정탸다 하여 큰부인과 작은 부인 둘다 궁당으로 내쫓는다는 내용이다. 이 신화에서도 일부다처제를 나타내며, 호칭도 큰부인, 작은 부인으로 되어 있다. 또한 파오는 작은 부인이 저질렀음에도 큰부인도 같이 벌을 받는 것이다. 다처간의 호칭이나 지위에 있어 차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보목리 본향당 본풀이³⁹⁾를 보면, 본향당신은 한라산 백록담에서 솟아난 ‘북뽕웃님’이며, 그 부인은 ‘신중부인’이다. ‘북뽕웃님’이 그 부인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다 처를 토펽리 허씨댁 과부 집에 맡겨둔다. 그가 다른 신들과 바둑을 두다 처를 찾아가 보니 처는 돼지 간을 먹어서 냄새가 났다. 더럽다고 처를 ‘막골동산’에 좌정시켜 사냥꾼의 제사를 받아 먹게 하고, 자신은 ‘새금상’ 따님을 소첩으로 삼아 좌정했다. 이 신화에서는 조강지처인 본처를 내쫓고 오히려 첩을 남신과 함께 좌정시키고 있다.

이번에는 성산읍 수산리 본향당 본풀이⁴⁰⁾를 보기로 하자. 이 신은 수산 ‘울웨므루 하로산’으로 한라산에서 태어났다. 송당에 와 ‘금백주’(웃송당 여신)를 부인으로 삼고 수산에 건너와 산다. 이 부인이 들에 나가 돼지 발자국에 고인 물을 마시다가 돼지털이 코에 들어가 켜졌다. 남편신인 ‘울웨므루 하로산’은 부정하다고 하여 마라도로 귀양 보내고, 용왕국에 들어가 용왕국 딸녀를 소첩으로 얻고 돌아온다. 소부인이 대부인 귀양을 풀러 가니, ‘너 아니면 내가 왜 귀양을 오겠느냐’고 시앗싸움을 한다. 소부인이 ‘내 그른게 아니우다(내 잘못이 아닙니다). 성님 남편(男便)네가 그르우다’하고 본부인과 그 자식들을 데려다 三夫妻가 살아간다. 처첩의 호칭은 대부인, 소부인으로 불리며, 첩이 본부인에게 ‘성님’(형님)이라 호칭하고 있다. 본부인의 귀양을 첩이 풀고 함께 살아가는 일부다처형의 모습이다.

이와 같이 첩이 귀양풀어 오는 본풀이는 수산 본향당, 토산 일뽕당 본풀이에서 보인다. 처가당신화에서 금기시 하는 돼지고기류(털, 내장 등)를 먹었다가, 유배 또는 별거당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본풀이는 위의 두 본풀이 이외에도 많이 있다. 신평리, 표선리, 종달리, 월정리, 보목리 본향당 본풀이 등에도 나타난다. 이 금기파괴와 그에 따른 엄격한 형벌의 모티브가 이렇듯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신화론적 금기관에서는 금기파괴에 가혹한 형벌이 가해지는 것이 상례이다. 또 제주도는 삼성을 제외한 모든 성씨들이 대부분 육지에서 유배되어 왔다. 그만큼 도민들에게 있어 유배는 일상화되어 있는 관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신화에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사고체계의 반영이 아닌가 생각된다.

38) 현용준, 전계서, pp.590-591.

39) 현용준, 전계서, pp.355-738.

40) 현용준, 전계서, pp.686-688.

서귀 동흥동 본향당신화⁴¹⁾는 자매간의 처첩관계를 보여준다. 이 본풀이는 “남편은 비씨영감 뽕옷도, 큰부인은 고산국, 작은 부인 지산국 삼부처(三夫妻) 됩네다.”로 시작된다. 뽕옷도는 미인인 동생을 보고 장가를 들었는데, 추한 언니가 신부임에 실망하여 처제인 동생을 데리고 제주로 도망온다. 동생과 남편이 달아난 것을 알아챈 본부인 고산국이 쫓아왔으나 끝내 화해할 수 없었다. 본부인은 서흥리 지경에 좌정하고, 남편과 동생은 우알서귀(上下西歸)를 차지하여 당신이 된다는 내용이다. 미인 동생이 남편과 열에 끝에 첩으로 둔갑하는 자매간의 갈등을 그린 신화이다. 본부인인 고산국은 몹시 분개하여 서로가 차지한 지역끼리는 혼인은 물론 우마 출입도 못한다고 일방적으로 정해 버린다. 그래서 근래까지도 서흥리와 우알서귀간에는 통혼을 금기시 여기는 습속이 남아 있다고 한다.

이 당신화를 두고 자매연혼(sororate)으로서, 姉妹緣 일부다처 혼속의 반영으로 이해될 수 있을지는 좀더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다른 신화에서는 그러한 예를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신화는 자매간 갈등과 대립이 서로 좌정한 마을들간의 금혼의 관습으로 이어진다. 세화리 당신화에서도 백죽도를 겁탈하려한 명등소천국에게 화가 난 ‘천굿또’가 역시 두 마을간의 혼인금지 명령을 내린다.⁴²⁾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촌락내혼의 통혼권에 역행되는 신화를 보게 된다.

감산리 ‘호근 여드렛당’ 본풀이⁴³⁾에는 당신 ‘에리헛빳’ 제상곡 하로산’과 부인인 ‘황토나라 황토부인’이 등장한다. 이 당 앞에는 ‘이씨할망 여드렛한집’이라하여 八日神이 같이 사제되고 있다. 팔일신은 본래 조천 이훈장의 딸로서, 정의현에서 감산리 출신인 오좌수의 첩이 되었다. 오좌수가 해직되어 귀향할 때 첩이 따라와, 그 앞집에 기거하다 병들어 죽었다. 오좌수 아들은 ‘양반의 집안에 첩이 있을 수 없다’하고 이 당 앞에 묻으면서 같이 얻어 먹으라고 학대하므로, 화가나서 오씨 집안에 재해를 주어 승앙받는다라는 것이다. 첩에 관한 당신화는 대부분 남편, 본처, 첩과의 애증과 갈등이 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본풀이에는 아버지의 첩을 인정치 않으려는 본처의 자녀와, 그에 보복하는 첩 사이의 갈등이 그려지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일반신 본풀이 중에 문전본풀이⁴⁴⁾에서는 무능한 남편으로 인한 처첩간의 갈등, 첩과 본처 자녀들 간의 갈등이 적나라하게 묘사된다. 본풀이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남선고을 남선비와 여산고을 여산 부인과의 사이에 아들 7형제가 있었는데 몹시 가난하였다. 부인의 권유로 남선비는 배를 타고 곡식장사를 떠나 오동고을에 당도하게 된다. 어리석은 남선비는 그곳에서 한 여성의 꾀임에 빠져 그녀를 첩으로 삼고 돈도 몽땅 잃게 된다. 기다리다 지친 본처가 찾아가니, 첩이 아양을 떨며, 함께 목욕하러 가자고 유인하여 물에 빠뜨려 죽여 버린다. 첩은 앞 못 보게 된 남편에게 자신이 본부인인체 속여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다. 똑똑한 막내아들

41) 현용준, 전계서, pp. 738-741.

42) 고광민, 「당본풀이에 나타난 갈등과 대립」, 『탐라문화』 제2집, 제대탐라문화연구소, 1983, pp. 143-146.

43) 현용준, 전계서, pp. 767-770.

44) 현용준, 전계서, pp. 398-415.

이 친모가 아님을 알아채고 형들을 깨우친다. 첩은 아들들도 죽이려고 배가 아프다고 뒹굴며, 아들 7형제의 간을 내어 먹어야 낫겠다는 집괘를 꾸며낸다. 7형제의 간을 내어 먹고 대신 한 배에 셋씩 세번을 낳아 아들 9형제를 낳겠다는 말에 남편은 칼을 간다. 막내는 산으로 가 멧돼지 간 여섯을 내다가 자기 형들의 간이라고 제모에게 드린다. 먹는 체하며 자리 밑으로 숨기는 현장을 덮쳐 음모를 백일하에 폭로한다. 겁이 난 첩은 번소로 도망가 목매어 죽어 번소신 '최도부인'이 되고, 면목없는 아버지는 '올레'(골목)로 내닫다가 정낭에 걸려 죽어, '정주목신'이 된다. 7형제는 물에 빠져 죽은 어머니를 살려내어 부엌의 신 조왕으로 앉히고, 아들 중 위로 5형제는 五万士神이 되고, 여섯째 아들은 '뒷문전'(마루의 뒷문신)이 되고, 똑똑한 막내는 '일문전'(마루의 앞문신)이 되었다.

간교한 첩의 음모로 말미암은 가정 내 갈등이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다. 나아가 여러 家神의 형성 유래도 설명되었다. 혼인생활에서 나타나는 가족구성원들의 성격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우선, 이 본풀이에 나오는 아버지 또는 남편상은 무능하기 이를 데 없다. 가난한 생활을 타개할 능력이 없어, 가장으로서의 수단적인 역할(instrumental role)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부인이 타개책을 제시하자 곡식장사를 나간다. 그러나 이 역시 성공하지 못하고 돈을 빼앗으려는 첩의 유혹에 넘어가고 만다. 취첩 모티브는 여러 당신화에도 나오는 이야기로,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용인되는 사항이라 비난의 대상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하자.

문제는 아무리 눈이 어두워졌다고 하지만, 처첩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맹목이며 무능하다는 사실이다.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은 신체적 불구만이 아니라, 모든 사고능력이 훼손되었음을 의미한다. 심지어 아들들까지 죽이려고 칼을 간 대목에 이르러서는 어떤 논리나 변명도 설득력을 잃는다. 과거부터 제주도는 여성의 노동경제력이 두드러지고 상대적으로 남성들의 활동력은 저조하게 비쳐져 온 것이 사실이다. 상대적으로 제주 남성의 위치가 열세에 놓이게 됨을 남선비를 통해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한다.

본부인은 첩의 꾀에 속아 물에 빠져 죽는 순진한 인물로 그려졌다. 영악하거나 간교하지 않은 것 또한 제주 여성의 전형적 모습이다. 달리 말하면 멧없이 우직하고 직선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본부인은 제주 여성상에 걸맞게 표현되고 있다. 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돈을 마련하여 남편을 곡식장사로 내보낸다. 귀찮아지 않는 남편을 앉아서 기다리다 못해, 배를 타고 남편을 찾으러 바다를 건너가는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제주 여성은 일에는 부지런하나 상냥하게 애교부릴 줄 모르는 모습으로 비쳐진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첩은 제주 여성이 아닌 듯하다. 남편이 배를 타고 육지로 곡식장사를 떠났고, 거기서 첩을 얻었기 때문이다. 첩은 '엇인 언강 수뭇 내뎡'(없는 아양 수뭇 내면서) 간교를 부려 돈을 빼고, 본부인을 속여 죽이고 본처 자녀들도 죽이려다 막내의 총명으로 들통나게 된다. 당신화에 등장하는 첩들은 이런 간특함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본처를 도와 귀양 풀어주는 대목들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한편 아들들도 신으로 좌정하면서 각자 자신의 역할을 분담하는 바, 이는 제주도 가족의 철저한 분가의식의 반영으로 보인다. 특히 조왕과 문전에 대해서는 예우하며, 지금도 진도적으로 조상숭배의 제사나 집안에서의 모든 의례 때에 문전제와 조왕고사를 지낸다. 문전제는 조상의 제

사를 지내기 직전에 상방의 앞문쪽에 작은 젓상을 차리고 남성이 제관이 되어 행한다. 그 다음 그 제상은 고스란히 부엌으로 넘겨져 여성에 의해 제물을 조금씩 그릇에 떠 모아 부엌의 솔걸어 놓은 뒤쪽에 던져진다. 이것이 조왕에 대한 고사이다. 남신인 문전신과 부엌의 신 조왕이 중요시 여겨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⁴⁵⁾

축첩 관행과 관련하여 그것을 一夫多妻婚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⁴⁶⁾ 조선조 중기나 후기에는 양반층의 축첩을 사회적으로 용인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적·서 구별이 엄격하고 처첩간 지위의 차이가 분명하였다. 이런 관행은 근대화 초기까지도 이어져 내려왔다고 볼 수 있다. 5.16이후 관에 의해 강제로 축첩 관행이 사라지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공식, 비공식적으로 널리 용인되어 왔다. 1800년대 대정현 좌면 하원리 호적증초에는 첩도 등재되어 있다. 따라서 일부다처형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화에 나타나는 혼인형태에는 일부일처제와 일부다처형이 나타나고 있다. 본처가 있고 후에 첩을 한명 얻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러 명의 첩을 거느리는 신화는 보이지 않는다. 호칭에 있어서는 큰부인, 작은 부인 또는 처와 첩으로 불린다. 그런데 과오를 저지른 남편이 집을 나가 첩을 얻는 송당 신화를 제외하면, 다른 당신화에서는 본부인의 과실이나 금기파괴 때문에 축출되고 첩을 얻는 사례가 많다. 그런가 하면 첩이 오히려 본처의 불행한 처지를 도와주고 동거하는 사례도 나타난다. 이혼이 아니라 본처를 두고도 축첩하는 본풀이 내용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그 분포가 흔하지 않은 일처다부형의 흔적은 제주도 신화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V. 婚姻決定 및 條件

혼인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신랑과 신부의 의사결정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크게 자유혼과 중매혼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자유혼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의해 혼인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남녀간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연애혼이라고도 한다. 반면에 중매혼은 당사자의 의사보다 그 가족들 특히 가장의 결정권이 혼인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혼인이 당사자 두 사람의 결합이라기 보다는 가문 대 가문의 결합이라는 성격이 짙다. 혼인이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家'라는 집단의 문제로 중시되어, 가부장권이 행사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의 의사결정에 중매인의 역할이 중요한 기능을 하는 혼인결정이다.

45) 현용준, 「무속신화의 사회적 기능」, 『심전 김홍식 교수 화갑기념논총』, 제주문화사, 1990, pp. 588-595.

46) 김택규는 이 축첩 관행을 특권층의 일부일처제 변형으로 보고 있다. (김택규, 「한국현연관습에 대한 일고찰」, 『한국민속연구논문집』 1, 일조각, pp. 118-119). 그러나 제주도는 남성 특권층에 의한 축첩의 측면과는 다르며, 여성의 입장에서 육지의 '첩살이'와는 관념이 다르다.

제주도 신화에는 어떤 유형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여기서는 일반신 본풀이 중의 하나인 세경본풀이⁴⁷⁾를 보고자 한다. 이 본풀이에 나오는 ‘즈청비’는 부모가 늙도록 자녀가 없다가 절에 치성드린 후 무남독녀로 태어났다. 자청비는 문도령에게 반해 부모에게 애절한 후 남장하고 문도령과 글 공부를 간다. 애정을 느낀 그녀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문도령과 고행하다가 소원을 이룬다. 연인을 만나 혼인 생활에 들어갔으나 끝내는 파탄에 이르러 신으로 좌정된다. 이 세경본풀이에서 ‘즈청비’는 사랑을 위해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부모와의 인연을 끊으면서도 자신의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자유혼을 한다.

세화리 당신화에도 연애혼의 성격이 짙게 나타난다. ‘금상님’이 ‘백जू도’를 찾아 제주에 내려오고, ‘백जू도’도 그에게 마음이 끌려 외조부의 허락으로 혼인하게 된다. 이 과정 또한 일종의 연애혼, 곧 자유혼으로 볼 수 있다. 김녕 ‘케베킷당 본풀이’⁴⁸⁾는 송당 신화와 거의 같으나, 거기에는 출생지, 혼인상황 등이 좀 더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다. ‘백जू도’는 강남천자국 백모래 밭에서 용출했는데, 그녀가 천기를 짚어보고 소천국을 찾아와 혼인해 산다. 여신이 천기를 본 후 제주도로 찾아왔다는 것은 혼인에 있어, 제삼자의 관여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혼인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었다는 점에서 자유혼 유형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반면 삼성신화에서는 남성집단으로 여성들이 찾아온다. 동해 벽랑국의 왕, 즉 장인이 딸들을 보내고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자를 중매인으로 본다면 처가에서 청혼을 하는 셈이다. 제주도에서는 오늘날도 여성의 사주를 남성측에서 받아가 택일하므로 육지와는 다르며, 그것은 신화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신부감들을 데리고 온 사자가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중매혼인 것만은 분명하다. 과거 제주도의 혼인이 중매혼으로서 부모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보편적 현상이었다. 삼성신화의 내용도 그 연장선상에 놓아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중매혼은 문헌신화인 삼성신화에서, 자유혼은 무속신화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음에는 약탈혼(marriage capture)에 대해 살펴보자. 혼인의 의사결정권 반영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약탈혼은 강제적이다. 약탈당하는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동의권도 무시되는 것이다. 이 혼인 유형은 무속신화에 많이 나타나는데 세화리 본향당 신화에는 서울 남산 출생의 임정국 따님 ‘백जू도’가 외조부를 찾아 제주도 세화리로 오던 중, 평대리의 멍통이 당신 ‘멍동소천국’에게 팔목을 붙잡히자 팔을 싹싹 깎아 던져 버린다. 팔목을 잡히기만 해도 잘라버리는, 매서운 정절과 순결이 강조되는 가부장제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외조부인 ‘천जू님’은 자기 자손을 겁탈하려 했다하여 화가나서 땅과 물을 가르고, 서로간 사돈도 맺지 못하도록 한다.

그런데 토산 ‘요드렛당’ 본풀이에서는 여신이 제주에 입도하여 토산으로 가는 도중 성산읍 신풍리 남신인 ‘개로육섯도’가 뒤쫓았다. 표선면 토산리로 피신하다 팔목을 붙잡히니 더럽다고 자기 팔목을 싹싹 깎아버린다. 용왕국에 이 사실을 보고하니, 그 남신의 말을 들어야 앉아도 먹고 서도 먹을 수 있는데 말을 듣지 않았다고 야단치므로 ‘개로육섯도’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부인이

47) 현용준, 전계서, pp. 315-364.

48) 현용준, 전계서, pp. 636-647.

된다. 언약도 없이 팔목부터 덩석 잡았으니 더럽다 하여 은장도로 팔을 잘랐음에도 부부로 맺어지는 것을 “약탈적 혼인방식 모습”⁴⁹⁾이 보인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앞에서 논의되었던 세경본풀이에는 자청비를 푸대쌈하려는 대목이 등장한다.

필자가 survey 도중 한 노인이 젊었을 때 약탈혼을 직접 목격했다는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혼인식을 올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이 ‘푸대쌈’을 하여 막걸리와 돼지고기 등 약간의 음식을 마련하여 간단한 잔치를 치르고 애월읍에서 살았다는 것이다. 또한 제주시에도 푸대쌈을 당하여 억혼한 할머니가 생존해 있다. 약탈혼의 한 유형으로써 과부푸대쌈은 한국 농촌사회에서 존재하였던 바,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신화를 분석해 나가다 보면 독신의 신들이 나타난다. 미혼의 문제도 혼인결정의 유형에서 다루어 볼 수 있을 듯하다. 안덕면 사계리 소재 ‘ㄱ느락당’ 본풀이⁵⁰⁾를 보면 이곳의 당신 ‘吳氏 아미’는 대정향교 守僕의 딸이다. 워낙 미모가 뛰어나 많은 선비들이 따랐다. 한 선비와 사랑에 빠졌으나 상하를 엄격히 가리는 관습의 벽 때문에 혼인할 수 없게 되자, 향교에서 자살, ‘ㄱ느락당’으로 좌정하여 처녀신이 되었다. 중문면 하원리 일렛당은 ‘비바리(처녀)당’⁵¹⁾이라고도 하는데, ‘뿔동산 일렛중저 처녀 아기씨’가 정좌해 있다고 한다. 남성의 출입을 엄금하고 있고, 당에 치성 드리러 갈 때에도 외면하고 가는 처녀신이다. 서울·경기에서 제주섬을 구경했다가 온평리 본향당신이 된 ‘맹호부인’도 독신녀이다.

이상에서 보면 ‘ㄱ느락당’의 오씨아미는 열애를 했으나 반상의 계층 차이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살한다. 양반은 양반끼리만 혼인하는 계층내혼제의 특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하원 일렛당신이나 온평리 본향신 본풀이 내용에서는 왜 이들이 독신녀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이에 대해 인근에 독신인 남신이 없어서 독신녀로 남아 있다고 하면서, 세화리 ‘천쫄도’도 독신이라는 해석⁵²⁾도 있다. 다른 한라산 출생신 대부분이 부인을 하나 혹은 둘씩 두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 이유로서 근처에 여신이 있어도 혼인시킬만한 대등한 配位女神이 없기 때문이라 보았으나 재고의 여지가 있다.

‘천쫄도본’을 보면 이 남신의 위용이나 기량이 매우 뛰어난 신으로만 묘사될 뿐 그의 혼인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되지 않는다. 그런데 ‘천쫄도’가 ‘백쫄도’의 외조부로 호칭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녀를 내 자손이라 하고 있다. ‘백쫄도’의 부친인 ‘임정국’과 ‘천쫄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백쫄도’가 ‘천쫄도’의 외손녀라면, 이들 사이의 가계는 분명해진다. 따라서 본풀이에서 ‘천쫄도’ 옆에 어떤 여신이 좌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하여 독신으로 보아 넘길 수 없는 난점이 있다. 신화의 세계도 인간세계의 반영으로 본다면, 문맥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부인과의 별거나 이혼, 사별 등도 설정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9) 현용준, 전계논문, 1964, p.17.

50) 현용준, 전계서, p.773.

51) 현용준, 전계서, p.748.

52) 현용준, 전계서, 1992, p.140.

이번에는 신화에 나타나는 혼인 조건을 살펴보기로 하자. 혼인조건(marriage condition)이란 배우자의 선택에 있어서 어떤 조건이 부여되느냐의 여부로 그 유형이 나누어진다. 크게 우선혼(perferred marriage)과 지정혼(prescribed marriage) 유형이 있다. 우선혼이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특정한 범위의 상대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혼인⁵³⁾을 말한다. 특정 범주에서 배우자를 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 선호되는 혼인유형이다. 이 우선혼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형제연혼(levirate)과 자매연혼(sororate)이 있다. 형제연혼이란 남편이 사망했을 때, 부인이 그 남편의 형제와 혼인관계를 맺는 것이다. 반대로 자매연혼은 부인이 사망했을 때 남편이 그 부인의 자매와 혼인하는 것을 일컫는다.

우리나라에서도 고구려 시대에 兄死娶嫂 관습이 있었다는 사실은 기록상으로도 나타나 있다. 또 우선혼에 해당하는 누이바꿈(sister exchange) 관습도 존재했던 사실을 찾아볼 수 있다. 누이바꿈이란 서로 친한 양가가 여성을 맞바꾸어 혼인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의무적인 것은 아니므로 우선혼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누이바꿈을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하기도 한다. “하나는 경제적인 원인이 추가되어 혼인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딸을 직접 바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정이 남달려 두터운 사람들이 사돈을 맺음으로써 우정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⁵⁴⁾으로 보는 견해가 그것이다.

지정혼이란 혼인 상대를 특정 범위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의무적으로 혼인하는 것을 말한다. Lévi-Strauss에 따르면, 지정혼은 특히 4촌간의 혼인을 지정하는 것이지만, 사촌이라고 해서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범위의 4촌을 형제자매와 마찬가지로 금혼의 범위에 넣고, 어떤 범위의 사촌은 지정혼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은 사회에 따라 차이가 있다⁵⁵⁾고 한다. 이 지정혼에는 평행사촌혼(parallel-cousin marriage)과 교차사촌혼(cross-cousin marriage)이 있다.

제주도의 당신화를 살펴보면 이 평행사촌 또는 교차사촌과의 지정혼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사회의 친족관념에 비추어 보면, 평행사촌은 아버지 남자형제들의 자녀와 이모의 자녀가 된다. 교차사촌은 고모와 외삼촌의 자녀들이 해당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신라나 고려시대에 시행되던 동성혼이나 근친혼이 조선 중기 이후에는 철저하게 규제되어 왔다. 제주도 신화 역시 이런 동성혼이나 근친혼적 요소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우선혼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누이바꿈은 나타나고 있다.

표선면 토산리의 ‘여드렛당’은 蛇神을 모시는 당이다. 이 당신을 섬기는 일은 단골(信仰民)의 딸에서 딸로 세습된다고 믿고 있다. 이 토산당 본풀이 내용 중에는 신의 홍협으로 광증을 일으킨 두 여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성들은 누이바꿈으로 혼인한 한씨 이방과, 강씨 형방의 누이라는 것이다.⁵⁶⁾ 이 당신화는 누이바꿈 혼인에 대해 직접적인 서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

53) G. P. Murdock, *Social Structure*, N. Y. Free Press, 1949, p. 122.

54) 이광규, 「한국의 가족과 종족」, 민음사, 1990, p. 56.

55) C. Lévi-Strauss, *The Elementary Structure of Kinship*, Boston, Beacon Press, 1969, p. 14.

56) 진성기, 「제주도무가집」 2, pp. 20-34.

다.

제주도는 혼인에 있어 촌락내혼제가 매우 흔하다. 아마도 전체 지역 자체가 넓지 못하고, 거기에 반상의 의식마저 잠재되고 있어서 더욱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마을 내에서 혼인이 이루어지다 보면, 이리저리 온 동네 사람이 친·인척 관계망을 형성하게 된다. 결국은 누이바꿈 혼인의 형태가 생겨날 여건도 조성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향교에 다니던 사람들끼리 직접 누이바꿈 혼인을 시행했던 사례⁵⁷⁾가 1900년대 전후에 실재했었다는 제보자들도 있다. 마라도에도 개척 초기 이주민들의 정착하는 과정에서 '누이바꿈'으로 이주민 가족끼리 통혼 했다⁵⁸⁾는 사실이 보고된 바 있어 이 신화의 내용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VI. 結 論

제주도의 혼인 연구를 사적으로 고찰하는 데는 문헌자료의 부족으로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제주도 신화는 삼성신화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무속의례에서 구연되는 무속신화이다. 이 신화들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거듭해 온 것들이다. 그 변화는 수렵문화에서 농경문화로 정착하는 고대 생활상의 반영에서부터 조선후기 사회문화에 이르기까지 누적되어 왔다. 따라서 이들 신화에 그려진 혼인의 여러 양상은 그대로 고대부터 근대까지의 혼인변천사의 여러 파편들이다. 그러므로 문헌기록이 없어 재구할 수 없는 현시점에서 제한된 자료나마 문헌신화인 삼성신화와 무속신화를 통해 살펴본 혼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혼인규제의 측면에서 볼 때 족외혼적이고 지역외혼적인 외혼제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여성이 혼입해 들어오는 가부장제적 유형과, 남성이 혼출해 나가는 서류부가혼의 상반된 모습이 나타난다. 통혼권은 그 범위가 섬밖으로 확산되는 도외혼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것은 외부세력과의 혼인연맹을 통해 선진문화를 받아들이는 발전과정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둘째 혼인거주규칙은 여러 갈래로 나타남을 발견할 수 있다. 부처제거주, 모처제 거주, 모처-부처제거주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모처-부처제는 서류부가 혼인으로 이 유형의 분포가 넓고 일반적이다. 한국 가족이 꾸준히 서류부가혼을 유지해 왔으나, 제주도에선 실증적 고찰을 통해서도 아직 찾을 길이 없었던 유형이다. 그런데도 신화에서 이런 유형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신화에서 나타난 바를 바탕으로 서류부가혼의 존재 여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주요 과제라 할 수 있다.

셋째 혼인형태별로 볼 때 일부일처제와 일부다처제가 공존하고 있다. 일부다처제라 해도 첩을 한 명 두는 유형이다. 처첩간 갈등이 첨예화되어 마을간 금혼 원칙이 수립되기도 하지만, 그에

57) 이광규, 「통과의례」,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5, (제주도편), 문화재관리국·문화공보부, 1974, p. 63.

58) 이기욱, 「도서와 도서민: 마라도」, 「제주도연구」 1, 1984, p. 176.

못지 않게 화합하는 유형도 많다. 처첩의 호칭에 있어서 큰부인, 작은 부인 또는 대부인, 소부인으로 불리고 있다. 처첩간에 큰, 작은의 구별이 있을뿐 신분상 뚜렷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여성이 이혼을 제기해 남편을 내쫓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본처가 금기사항을 어겨 귀양가기도 한다. 귀양 모티브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제주도가 처했던 유배지로서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넷째 혼인결정에서 중매혼과 자유혼의 유형이 골고루 나타난다. 반상의 신분차이로 혼인 못하고 자살하는 신화를 통해 계층내혼제적 요소도 추정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약탈혼의 잔영도 등장하며, 우선혼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 누이바깸도 존재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화에서는 실증적 고찰이 가능한 시기의 혼인의 성격과 상당히 다른 특성들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 가족이 동성혼, 근친혼에서 동성동본불혼으로 변해왔음에 비해 삼성신화는 이미 족외혼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 신화의 출현시기, 신화의 기록과정에서 성씨중심 사상의 반영, 이 신화의 성격을 씨족신화로 규정할 것이냐, 부족신화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서류부가혼의 모습과 도외혼적 통혼권은 실증적 고찰과 상당히 다른 면모로써, 신화에 나타난 혼인의 모습을 인정한다면 제주도 가족과 친족 나아가서 사회구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길이 열릴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화에 나타나는 혼인의 성격과 실증적 고찰이 가능한 시기와의 사이에 생길 수밖에 없는 격차는 문헌자료의 발굴과 더불어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Summary

A Study of Marriage Customs in the
Myths of Cheju Island

Hye-Sook Kim

The myths of Cheju Island show the following marriage customs :

1. They show marriage regulations of relative exogamy and local exogamy.
2. They show different rules of residence—patrilocal residence, matrilocal residence and matri-patrilocal residence.
3. They show marriage forms of monogamy and polycoity, a kind of polygyny.
4. They show marriage types of arranged marriage, free marriage, marriage capture and sister exchange.

The marriage customs of local exogamy and matri-patrilocal residence are unique in that they do not seem to have existed in the times of which there are records. Therefore, more studies are called for to elucidate their roles in the life of ancient Cheju people.